



01

삶과 죽음의 윤리

성·취·기·준

-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인식한다.
-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윤리적 입장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 인공 임신 중절·뇌사·인락사·자살의 문제를 자신이 선택한 윤리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출생의 의미와 삶의 가치

생각해 봄

사람들이 출생을 축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출생의 윤리적 의미

인간의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나와 독립적인 생명체를 이루는 현상이다. 출생은 생물학적으로 부모의 유전자를 이어받아 인간이라는 종의 존속을 위해 번식하는 과정이고, 개인적으로는 한 인간의 삶의 시작이며 자신의 의미를 실현하는 시작점이다. 또한 이전 세대의 문화적·정신적 유산을 계승하고 앞으로의 세대를 이끌어 준다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

출생과 삶의 목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어떻게 태어나는가?”와 관련이 깊다. 유교에서는 태어날 때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보았다. 불교에서는 수많은 선업(善業)을 쌓아야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서양의 자연법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출생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려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례를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신과 출산, 출생으로 이어지는 삶의 과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 인간의 출생은 도덕적 주체로서 삶의 출발점이며,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시작한다는 윤리적 의미가 있다.

- 5 **생명의 윤리적 의미** 생명은 대체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과학적으로는 생물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생명을 설명하지만, 생명의 가치나 의미는 현상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생명은 일회적이고, 고유하며, 유한하다. 이러한 생명은 대체 불가능한 본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체험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생명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생명의 본래의 의미와 그 존엄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냐에 따라 생명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접근과 해결책도 다르게 제시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 우리나라는 아기의 탄생을 알리면서 대문에 금줄을 매달아 놓는 풍습이 있었다.



▲ 터키에서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아기의 이름으로 소나무를 심는다.

▶ 인도에서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적령 의식을 치른다.



스스로 생각하는 머

윤리적 관점에서 생명하기

태교와 베이비 디자인, 무엇이 다른가?

- 가 고대에 부인이 임신하면 옆으로 눕지 않고, 모서리나 자리 끝에 앉지 않으며, 거친 음식을 먹지 않았다. 현란한 것은 보지 않고, 저속한 음악은 듣지 않았다. 밤에는 악관(樂官)에게 시를 읊게 하고, 항상 올바른 이야기만 듣고자 하였다. —『소학』—
- 나 아이큐(IQ), 이큐(EQ), 운동 신경, 몸무게 등 여러분이 원하는 사양을 선택해서 제조업체 자료 은행에 올려 주시고 전자 화폐를 전송하시면 주문이 완료됩니다. 주문이 완료되면 유전자 검사기에 부모님의 머리카락을 전송해 주십시오. 검사 후 유전자 파일을 보내 드립니다. 주문 완료 후 설계와 배양 과정을 거쳐 2년 후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귀여운 아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결과' 버튼을 누르시면 고객이 선택한 조합으로 디자인한 아이의 결과와 가상 성장 단계에서 각각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귀여운 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지은 외, 「미래 혁명」 —

Q (가)와 (나)에 나타난 아기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자.



출생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인간의 출생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는 인공 임신 중절 문제와 생식 보조술의 도입에 따른 시험관 아기 문제, 비배우자 인공 수정 문제, 대리모 출산 문제 등이 있다.

인공 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 인공 임신 중절은 분만 전에 산모의 신체에서 태아를 인공적으로 분리하는 것인데, 임신을 인공적으로 종결한다는 의미이다.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논쟁은 임신부인 여성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생명을 가진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인공 임신 중절 허용론은 대체로 여성의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에 근거하며, 인공 임신 중절 반대론은 태아의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에 근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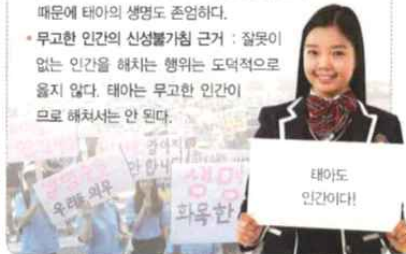
인공 임신 중절 찬성의 근거

- **소유권 근거** :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이므로 임신한 여성은 태아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 **생산 근거** : 여성은 태아를 생산하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 **자율 근거** :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 **평등권 근거** : 여성이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 **정당방위 근거** : 여성은 자기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를 지닌다.



인공 임신 중절 반대의 근거

- **잠재성 근거** : 태아는 임신 순간부터 성인으로 발달할 잠재성이 있으므로 인간의 지위를 지닌다.
- **존엄성 근거** :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도 존엄하다.
- **무고한 인간의 신성불가침 근거** : 잘못이 없는 인간을 해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므로 해쳐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 모자 보건법(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 우리나라 모자 보건법 제14조 ① 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 의사가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산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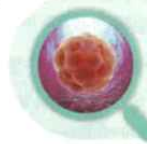
인공 임신 중절 허용 여부에 관한 다양한 근거가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어느 시점부터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수정란이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서부터 모체 밖으로 태아가 분리되었을 때,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시점을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

동양의 경우 태아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제도나 출생한 아기에게 태어나자마자 한 살의 나이를 인정해 주는 전통 등으로 보아 태아에게 어느 정도 잠재적인 인간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인공 임신 중절을 금지하고 있지만, 24주 이내의 태아일 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환, 성폭행 등에 의한 임신 등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함께 나누는 가을

• 윤리적 관점에서 임신하기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수정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면,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성장한다.



9주 된 태아
대부분의 기관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며, 뇌가 활동하기 시작한다.



6개월 된 태아
자궁의 상태나 태아 모두 안정되는 시기이다.



3개월 된 태아
눈, 코, 입 등이 발달하고 생식 기관이 만들어져 성별을 구별할 수 있다.



신생아
갓 태어난 아기의 피부는 붉고스름하고, 키는 약 50cm 정도로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큰 편이다.



- A 입장**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이다.
- B 입장** 산모가 태동(胎動)을 느끼고 모체 내에서 태아의 모습을 띄게 되는 9주쯤부터 인간이다.
- C 입장** 태아가 모체 밖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인 6개월 이후부터 인간이다.
- D 입장** 출산 후부터 인간이다.

- 1 A~D 입장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말해 보자.
- 2 자신이 생각하는 입장의 근거를 생각해 보고, 모둠별로 토론해 보자.

생식 보조술의 도입과 윤리적 쟁점 불임 부부가 자녀를 임신할 수 있게 돕는 의료 기술인 생식 보조술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살펴보자.

생식 보조술에는 인공 수정과 시험관 아기 기술이 있다. 인공 수정은 모체 내에 정자를 주입하여 수정 및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이고, 시험관 아기 기술은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시험관에서 수정란을 배양하고 이를 모체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생식 보조술은 불임 부부의 고통을 덜어 주고 출산율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영역 밖이라고 여기던 생명의 탄생에 인간이 개입하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 생명 공학이 발전하면서 비배우자 인공 수정, 대리모 출산의 문제가 나타났다. 비배우자 인공 수정은 부부 중 남성이 불임일 경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 수정하는 방법이다. 대리모 출산은 부부 중 여성이 불임일 경우 체외에서 수정된 수정란을 난자 제공자가 아닌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는 방법이다. 비배우자 인공 수정이나 대리모를 통한 임신의 경우, 아기의 친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두 명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대리모가 기형아를 출산한 경우 아기의 친권을 포기하는 문제, 대리 임신을 위한 금전적 거래를 용인할 수 있는지의 문제, 정자와 난자를 판매할 수 있는지의 문제, 생식 보조 시술 과정에서 이용되는 여분의 수정란과 배아의 처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들어 생식 보조술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이처럼 인간이 생명의 탄생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식 보조술은 생명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윤리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이 쌓이는 겨울

멋진 신세계 속의 어머니

인류는 이제 어머니의 자궁을 생(生)의 근원으로 삼지 않는다. 유전자 조작으로 100여 쌍의 쌍둥이가 공장에서 인공적으로 동시에 부화되고 기계적 조작으로 양육된다. 유리관 속에서 배양되는 태아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등 각기 지능과 능력이 다른 다섯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어 양육된다. 이렇게 태어난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근원적 고향이 어머니의 자궁이 아니라 인공 부화국의 유리관이 되어 버렸다.

- 허슬리(Huxley, A.), 『멋진 신세계』 -



위문 핵심 허슬리는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상상력, 본연성, 가능성 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과학 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과학의 진보가 인간의 행복을 가져올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2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생각해 봄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죽음의 의미와 삶

인간의 삶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자신의 죽음은 모든 관계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과 연결되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물론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위로받기도 하지만 일단 두려움을 느끼고 나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 다른 생물과는 달리 인간은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죽음에 대한 철학적 견해 *공자는 죽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군자는 길을 따라가다가 그 길 안에서 죽을 것이니 나는 살아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라고 하여 삶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장자는 삶과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는 "삶은 기(氣)의 모임이고 죽음은 기의 흩어짐이다."라고 정의하며,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한 걸음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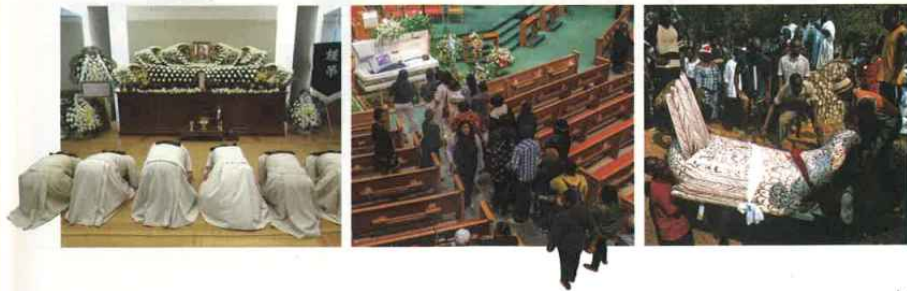
» 죽음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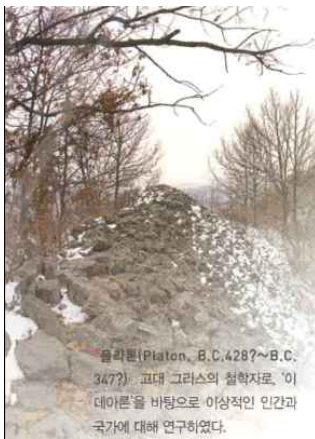
- 불가피성: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 평등성: 모든 사람은 죽는다.
- 일회성: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 수동성: 죽음은 원치 않아도 찾아온다.
- 불확실성: 죽음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



*공자(孔子, B.C.551~B.C.479)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로, 인(仁)의 가르침을 중시하였다.

▼ 각국의 장례식 문화는 달라도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마음은 같다.





*플라톤(Platon, B.C.428?~B.C.347?)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이데아'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인간과 국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데아(idea) 플라톤은 이데아를 감각적인 경험을 초월한 참된 존재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에피쿠로스(Epicurus, B.C.341~B.C.270) 고대의 철학자로, 금욕적 생활 속에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였다.

*하이데거(Heidegger, M, 1889~1976) 독일의 철학자로, 실존주의적 존재론을 전개하였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윤회(輪廻)로 설명한다. 즉 한 생명이 죽으면 그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 일정 시간을 머무르다가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고 본다. 이때 어떤 세상에 태어나는지는 이전 세상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따른 업보(業)에 의해서 결정된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달음으로써 이와 같은 끝없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플라톤은 죽음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영혼은 불멸한 것으로 출생 이전에는 '이데아의 세계에 속해 있었으나 태어나서 육체에 갇혀 있다가 죽음으로써 육체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보았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살아 있으면 죽음은 없고, 죽으면 느끼는 내가 없으므로 죽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이 세계의 다른 존재들과 같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죽음은 이런 원자가 분리되어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이데거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단순한 삶의 종말이 아니라 삶이 시작되는 사건이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직시할 때에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죽음과 소중함 죽음은 삶의 소중함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된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답해 줄 수 없으므로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이름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장자, 아내의 죽음에 복 치고 노래하다.



슬퍼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복 치며 노래할 수 있나?

죽은 사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대는 아는가?

1 장자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2 위와 같은 장자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

뇌사의 윤리적 쟁점

인간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심폐 기능의 정지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1971년 핀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뇌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무엇을 죽음의 판단 기준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처음으로 장기 이식을 위한 뇌사 판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뇌사를 죽음의 판단 기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심폐 기능의 정지를 죽음의 판단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뇌의 기능이 정지하면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장기를 이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 뇌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뇌의 기능 정지를 바로 죽음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뇌사 판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한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

- 뇌사자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열쇠는 심폐가 아니라 뇌에 있다.
- 뇌의 기능이 정지된 것은 충분히 판정할 수 있고, 뇌사 상태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는 무의미하다.
- 뇌사자의 장기로 다른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

-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 뇌사를 인정한다면 사망 시점을 명시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오진·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며,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가 다시 회복된 사례가 있다.
- 실용주의 관점은 인간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안락사의 분류와 윤리적 문제 안락사는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해서 환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중단하는 행위이다. '좋은 죽음'이라는 어원을 가진 안락사는 우선 환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환자가 동의하는 자발적 안락사, 환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반자발적 안락사,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비자발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선택이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자살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반자발적 안락사는 대체로 살인이라고 보기

한 걸음 더

» 뇌사 상태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 뇌사 상태: 뇌간과 연수를 포함한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이다. 모든 뇌간 반사가 상실된 상태로 연명 장치를 제거하면 일정 시간 후 심장이 멈춰 사망한다.
-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뇌의 일부가 손상을 입어 의식은 없지만, 뇌간은 살아 있는 상태이다. 호흡, 소화 흡수, 배변, 배뇨 등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은 하지만 자기 의지에 따른 운동, 음식을 섭취, 발생과 같은 기능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윤리적 논의에서 제외된다. 환자가 판단 능력을 상실했거나 의식이 없을 때에 시행되는 비자발적 안락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안락사를 시술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하기도 한다. 약물 투여와 같은 구체적 행위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며, 환자가 회복 불가능하므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죽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존엄사와 연결 짓기도 한다.

안락사 허용의 요건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서 안락사의 인정 여부가 사회적 관심사이다.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 충분한 의료 정보를 토대로 한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환자가 안락사에 동의해야 하고, 경제적 비용 등 다른 이유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사가 반드시 안락사를 시행해야 하고, 안락사 시행의 동기가 환자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 주는 데 있어야 한다.

인생
나누는 가을

•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하기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한 의견

안락사 허용법이 필요한가?

최근 말기 암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브리타니 메이나드 씨가 안락사 시술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4년 11월 안락사를 허용하는 오리건주로 거주지를 옮겨 안락사 시술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안락사 허용 법안을 가결하게 되었고, 안락사 찬반 논쟁이 뜨거워졌다.

안락사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죽음을 강요할 수도 있고, 저소득층과 건강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경우, 병원비에 대한 부담으로 가족들에게 안락사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한다.

— 『뉴스시스』 2015. 9. 12 —

고통스럽게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들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1 안락사 허용 법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해 보자.

2 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자신의 입장과 비교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지 토론해 보자.

자살의 윤리적 문제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워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체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자살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자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출생처럼 죽음도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기 생명이라도 자살은 엄연히 인위적인 죽임이므로 인간 존중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본 것이다. 칸트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인간을 언제나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라며 자기 보전의 의무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순간적인 고통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워 자살하려는 사람은 그 원인이 사라지면 자살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또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서 자살하려는 경우에도, 자신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살은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큰 슬픔과 상실감을 주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을 방지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확보, 자살 예방 교육의 강화, 상담 제도의 활성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쌓이는
겨울

자살 죄에 관하여

자살은 불행한 삶 또는 수치스러운 죄를 피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불행하다고 해서 혹은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다고 해도 자살은 옳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가장 끔찍한 악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자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물은 본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자살은 이러한 자연적 성향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부분이므로 자살을 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셋째,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신의 권능에 속하기 때문에 자살은 신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아퀴나스, 『신학대전』 —

원문 해설 아퀴나스는 자살을 세 가지 측면에서 금지하였다. 자살은 자연법의 측면에서 자연적 성향인 '자기 보전'을 거스르고, 공동체를 훼손하며, 신을 거스르는 행위이므로 금지해야 한다.



02 생명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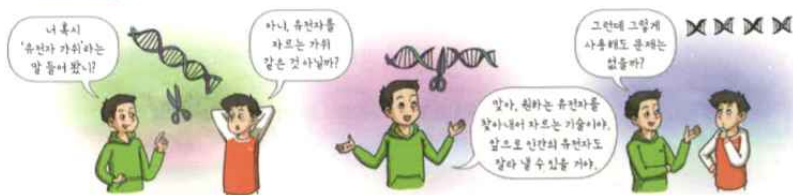
성·화·기·후

- 생명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 윤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생명 복제 및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쟁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
- 동물의 권리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여 자신의 입장을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

1 생명 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

생각해봅시다

정말 '유전자 가위'를 가위처럼 사용해도 좋을까?



생명 과학 기술과 생명 윤리

*유전자 지도(게놈 지도) 한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정렬한 것으로, 유전 정보는 DNA의 열기 서열로 나타난다. 2003년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함으로써 유전자의 기능 및 발현에 관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최근 생명 과학 기술은 동식물 복제와 제한적인 동식물 유전자 변형의 수준을 넘어 인간 배아를 복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된 현 상황에서 유전자 기술이 발달한다면 인간 유전자의 변형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생명 윤리의 필요성 생명 과학 기술은 다른 과학 기술과 달리 하나뿐인 생명을 다루며 생명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생명 과학 기술을 잘못 이용할 경우,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고 피해도 크기 때문에 생명 과학 기술의 연구와 적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 윤리를 '생명을 책 읽게 다루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로 정의할 수 있다. 생명 윤리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 등의 차원에서 생명 과학 기술의 윤리적 정당성과 한계를 성찰하여 생명 과학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한다.

생명 복제의 윤리적 쟁점

한 생명체와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것을 생명 복제라고 한다. 현재 동식물 복제는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인간과 관련된 복제, 즉 인간 배아 복제와 인간 개체 복제의 윤리적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1. **인간 배아 복제의 윤리적 쟁점**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을 활용한 복제 배아는 생식 초기에 관한 연구와 '줄기세포 추출을 통한 난치병 치료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배아 파괴를 수반하는 배아 연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배아가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첫째, 복제 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태아로 자라 아

2. 이로 태어나는 연속적인 과정 중에 있으므로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생식 과정의 특정 시점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점차 그 기준이 후퇴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배아 연구를 위해 복제 배아를 파괴하는 것은 존엄한 인간을 수단화하고 살인과 같다는 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복제 배아는 인간 개체가 될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은 세포 덩어리이므로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복제 배아는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연구를 위한 복제 배아 파괴는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의 희생을 통해 인간의 고통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도 이는 용인될 수 있다.

3. 셋째, 복제 배아는 착상되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니지만, 이미 태어난 인간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배아 연구를 통한 의료적 성과와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함께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면 배아 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줄기세포 특정한 조직이나 다양한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이다.

인간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주장하는 논거

- 종의 구성원 논거: 배아는 인간 종(種)에 속하여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 잠재성 논거: 배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다.
- 동일성 논거: 배아는 도덕적 존중의 기초가 되는 속성을 인간과 동일하게 가진다.
- 연속성 논거: 배아는 선명한 경계선이 없는 연속적인 인간 발달의 과정에 있다.